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9(土) 20(日)  
흐리고 비 23/30℃ / 흐린뒤 맑 23/31℃

**News**

- 박시장-與 의원 간담회 ②
- '성장클리닉 열풍' 진단 ③
- 판결로 본 100년전 시대상 ④
- 우즈-미켈슨 대결 무승부 ⑧

**Entertainment**

- '정은아의 아이콘서트' ⑧
- 스크린에 父性愛 바람 ⑨

**Books**

- 프레스턴의 '원자폭탄' ⑩
- 김영하의 '빛의 제국'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꽂치 ⑬

**Sports**

- 바둑, 흥미로운 기록 풍성 ⑮
- 골프 클리닉 ⑮

## ■ 예술영화 고집하는 '광주극장'

### 귀한 작품 만나는 '시네마 천국'

무서운 기세로 관객을 빨아들이고 있는 '괴물'은 현재 국내 스크린의 3분의 1인 500여개 스크린에서 상영중이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다카하타 이사오의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은 광주극장 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광주극장이 '좋은 영화'에 목말라 하는 영화팬들의 샘물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광주는 물론, 서울과 부산, 심지어 거제도에서까지 불만한 영화, 그러나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광주 역시 '괴물'의 흥행과 함께 불거진 '스크린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의 스크린 수는 102개. 그러나 흥행이 보장되지 않는 영화들은 아예 스크린에 걸리지도 못한다. 이런 점에서 광주극장은 영화팬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서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았던 '좋은 영화'는 1~2주 뒤 여덟이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광주극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극장만의 특성에 매료된 영화마니아들 때문이다. 물론 그 숫자는 적다. 광주극장의 한 달 평균 관객 수는 1천500여명. 지난해 1천200여명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 최근 오다기리 조 주연의 영화 '베중 드 히미코'에는 1천 600여명이 다녀가 광주극장으로서 대박(?)을 터뜨렸다.

#### 다양한 기획전·이벤트 인기

서울·부산서도 관객 찾아와

#### 인터넷 통한 영화자료 교환 등

관객들 스스로 모임도 만들어

광주극장의 단골 영화팬은 200여명. 그중 80여명은 광주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관람하는 열혈광이다.

광주극장은 무엇보다 관객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cinemagwangju.cafe)를 통해 회원들은 영화와 광주극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 관객 스스로가 책, 포스터, 음반 등 영화 관련 자료들로 버룩 시장을 열고 보고 싶은 영화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거나 교환한다. 영화 공부 모임도 꾸려질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폴시게'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는 60대 교사는 존 카메론 및 헬 감독의 '헤드윅'(원제: Hedwig and the angry inch)을 20번이나 본 영화광. 최근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모임'을 주선한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광주극장이 있어 행복하다"며 "우리가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광주극장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의 개봉작은 빼놓지 않고 본다는 강산(38·회사원)씨는 "광주극장은 별로 말은 없지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오래된 친구 같다"고 말했다.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멀티플렉스 탐바구니 속에서 유일



광주극장은 영화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한 영화 관객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영화 관련 자료들을 모아 마련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위리경기자 jnwi@kwangju.co.kr

하게 단관 극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극장은 2003년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아트플러스 체인'(연간 5천여만원 지원)이 된 후 좀 더 다양한 기획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 가수 커트 코베인의 일대기를 다룬 '라스트 데이스'는 관객 1명에게 영화관 1층을 통채로 빌려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영화팬들이 궁금해하는 영사실 투어도 마련했다. 무대 인사 감독들과의 즐거운 뒷풀이 역시 광주극장만의 풍경이다.

특히 1년간 개봉작 중 인기작을 모아 상영하는 '마지막 프로젝트'는 연말이면 관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프로그램이다. 9월에는 감독 루이 말의 고전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등 프랑스 대표작을 상영하는 '광태옹 뒤 시네마'가 예정돼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38) 이사는 "꼭꼭하게 버텨야 한다는 애절한 말들을 해 주실 때마다 좀 더 좋은 영화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北 핵실험 준비 가능성”

美 ABC·CNN 보도

정부 “확실한 증거없어”

북한의 핵실험장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돼 북한이 지하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 국무부와 군 고위관계자들이 말한 것으로 미국의 ABC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지하시설이 있는 (북한) 동북부의 풍계역(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외곽에서 핵무기 실험 때 지하 실험장과 외부 관측 장비가 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을 감은 대형 열매들을 내려놓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주 미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ABC는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자신들과 접촉한 미 정부 관리들은 그런 계획에 관한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정통한 서울의 한 외교관은 이 보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18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핵실험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포착된 바 없다고 밝히는 한편,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케이블 하역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는지 여부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CNN 방송은 미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 위성사진에서 지하실험 계층에 사용될 수 있는 전선 통들이 실험장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나타난 것이 보였지만, 이들 전선이 어떤 것에도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실험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ABC보도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할 새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핵실험) 위험이 가까운 시일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 여성 출산율 1.1명 '세계 최저'

美 인구조사국 발표

한국 여성은 평생동안 평균 1.1명의 자녀를 출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사국(PRB)이 17일(현지시각) 발표한 '2006 세계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홍콩, 마카오 제외)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국 여성 출산율 1.2명보다도 0.1명 줄어든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출산기 피험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 여성의 출산율은 2.0이었고 일본도 한국보다 약간 높은 1.3이었는데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1.6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권인 인구 1천명당 9명이었고, 사망률은 1천명당 5명이었으며 올해 인구 자연증가율은 0.4%로 작년 0.5%보다 더 떨어졌다. /연합뉴스

**일본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3박 4일(8월 28일 출발)  
31명(단체(10-20), 30명(단체(10-20))  
광주일보사 (062)220-0541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31명(단체(10-20), 30명(단체(10-20))  
▶ 31명(단체(10-20), 30명(단체(10-20))  
**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 31명(단체(10-20), 30명(단체(10-20))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완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김동완